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17과

절기를 통하여
구속의 계획의 역사적 진행을 가르치심(1)
유월절, 무교절, 요제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 요제일

시작하는 말 :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7절기를 주셨다. 1) 유월절 2) 무교절 3) 초실(初實 節 4) 오순절 5) 나팔절 6) 대속죄일 7) 초막절이 그것이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성소 봉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적 진행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표상제도이다. 이제 그 첫 절기인 유월절부터 연구 해보자.

1.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 한다.

[골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 골1:16,17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제 7일 안식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제 7일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라고 한 곳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창조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를 기념하는 날로 계시되고 있다. 이것은 죄를 짓기 전 에덴동산에서도 지켰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지킬 것이다.(사 66:23). 만일 그림자였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안식일은 절기에 부속되어 주신 절기 안식일을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일반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 9:10이다.

  [히 9: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함께 정지되었다.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

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 예언적 날수로 이레의 절반은 역사적 연대로 3년 반을 뜻한다. 이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야가 기름부음을 받은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모든 제사 제도가 표상하는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를 따라 성소 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육체의 예법이 금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장래 일의 그림자가 실상을 만나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폐지될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일상생활의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속 사업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씀과 일상생활에대한 말씀을 구별할 수 있으면 유익한다.

2. 유월절은 니산월(아빕월) 14일인데 예수의 십자가와 그 때를 가르친다.

[레 23:4,5]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고전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 19:14]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 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금요일 아침이었다).

[요 19: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그 날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

3. 유월절 양은 그 뼈를 꺾지 않았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출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 19:32-36]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 유월절은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희생의 때를 표상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한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을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자신이 예수의 제자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4.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예수의 희생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속죄 받은 자의 죄 없는 삶을 가르친다.

[레 23:6-8]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 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칠 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출 12:15-20] 너희는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6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칠 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 정월에 그 달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 칠 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20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출 12:16]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칠 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 절기 안식일임)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고전 5:7]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하여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을 뜻하며 계속하여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나타낸다.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이유는 계속성을 강조하는 표상이다.

5. 무교절 첫 날 곧 니산월 15일과 끝 날 곧 니산월 21일은 절기 안식일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생활을 표상하고 있다.

[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

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히 4:9-11]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4] 제 칠 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제 칠일에 자기 일을 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쉰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 아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인 제 칠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

히브리 4장에는 “안식”, 또는 “쉰다”라는 단어가 모두 합해서 11회 나타난다. 9절만 빼고 모두 카타파우시스(katavpausi", 카타파우오 katapauvw)이다. 카타파우시스는 명사고 카타파우오는 동사이다. 같은 종류의 말이다,

그런데 9절은 “사바티스모스(sabbatismov")”이다. 이 말은 안식일에 쉬는 것을 뜻한다. 다른 날 쉬는 것은 카타파우시스이다. 그러나 안식일에 쉬는 것은 사바티스모스이다. 그러므로 히4:9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쉬는 그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안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 같이 쉬는 것이다. 곧 4절에 그 내용을 말한 것이다.

6. 초실 요제일은 무교절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데 처음 익은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절기이다.

[레 23:9-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사분 일을 쓸 것이며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

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 요제일은 니산월 16일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의 유월절은 마침 금요일이었고, 무교절 첫 날 안식일은 마침 제 7일 안식일과 겹친 날이었다.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 하였다.(요 19:31) 그렇기 때문에 초실 요제일인 16일은 일요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제일이 표상한 대로 그 날 부활하셨다. 오늘날 예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폐한 절기를 다시 찾아 지키는 것과 같다.

7. **이상의 세 절기는 모두 니산월에 있는데 이것을 봄 절기라고 말하며 이상 연구한 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루실 사업을 표상하는 절기이다. 예수님은 과연 절기가 예표하는 대로 바로 그 때에 당신의 사업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골 2: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마치는 말 : 우리는 봄 절기의 구속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성경의 예언은 어김없이 그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은 예언들도 바로 그 때가 오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날마다 재림을 맞은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자.